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 18:1)

사람을 감동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우기진 편집국장: 조선근

## 오늘은 선교주일, 저녁에 선교헌신예배로

### 선교회비 작성, 선교위원회 총회로

교회는 오늘 선교주일로 지킨다. 오늘은 특히 총회 산하 전국 교회가 선교헌신예배를 드리는 날로 정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매년 1월 마지막 주일 전 교회가 함께 하는 선교주일로 지켜오며 선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폭을 넓히고, 새롭게 하여 온 교우들이 선교에 동참하게 하고 있다.

선교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하여 주일 I, II, III, IV부 예배시 1994년도 선교헌금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오늘 모든 교회학교에서는 선교에 관한 주제의 설교와 선교위원회가 작성한 선교에 관한 공과를 가지고 공부하게 된다.

또한 저녁 찬양예배는 선교헌신예배로 드려지게 된다. 이날 설교는 지난

임시당회에서 선교사 후보로 결정한 김영대 목사가 하게 된다. 선교헌신예배가 끝난 후에는 갈릴리홀에서 선교위원회 총회로 모여 1년 동안 행할 모든 행사를 점검하게 되며 아울러 선교를 위한 기도회도 가질 예정이다. 선교위원회에서는 이미 결정된 선교실행위원, 기도위원 뿐 아니라 선교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석하여 선교에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선교사후보생으로

## 김영대 목사 선임

### 일정기간의 훈련을 쌓은 후 선교사로 파송



교회는 지난 1월 21일 임시당회를 갖고 선교사 후보생으로 김영대 목사(40세)를 선임했다.

김영대 목사는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을 졸업한 후에 충신대학원을 졸업(M. Div.)하고,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으로 석사(Th. M in Miss.)를 받았다. 김목사는 현대교회, 내수동교회 등에서 전도사로서 일했고 우리교회 오기전까지 신장교회 담임목사로 일했다.

김목사는 10여년 전부터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충신신학대학원에 입학, 선교관계의 일을 보며 선교의 꿈을 키웠다. 신장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해서도 매월 첫 주 저녁예배를 '선교의 밤'으로 정하고 원주민 및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한국선교사들을 모셔 온 교회가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선교에 주력했다. 그래서 볼리비아, 인도, 태국 등지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했다. 또한 아시아연합신학원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도 그곳에 공부하러온 아시아인과 아프리카인들과 사귀며 그들을 후원하여 간접선교를 경험해 왔다. 또한 '열방선교회'를 조직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는 일들을 해오고 있다.

충신대학교 선교훈련원(M.T.I) 제2, 3기를 수료했다.

김목사는 선교사후보생으로 우리 교회에서 일정기간의 훈련을 쌓은 후 선교사로 파송받게 될 것이다. 가족은 박영애 사모와 2녀(은미, 영화)가 있다.

### 회계실무자 교육 실시

### 각 지회 회계실무자 중심으로

감사위원회에서는 1994년도 회계실무자 교육을 실시한다. 각 지회와 산하의 회계담당 실무자를 위한 교육으로 해당자는 필히 이수해야 할 과목이다.

1994년 2월 3일(목) 오후 7시와 2월 6일(주일) 오후 3시 30분에 교육관 301호실에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2회중 1회만 참석하면 된다.

회계실무자 교육은 각 지회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회계원칙 및 주의사항 등을 전달하게 되고 또한 각 실무자의 의견도 듣는 기회가 될 것이다.

### 94년도

### 성찬준비위원

예배위원회에서는 94년도 성찬준비위원을 선정했다. 성찬준비위원들은 1년에 네차례 실시하는 성찬식을 위해 포도즙 및 성찬떡, 성찬기 등을 준비하여 성찬준비를 하는 일을 한다. 성찬준비위원은 다음과 같다.

- 성례부장: 박만길 장로
- 성례차장: 이인상 집사
- 성찬준비위원:

백죽심 김성윤 김옥래 김순이 김정순 김경숙 김옥희 김준자 이일숙 이종숙 이성정 우수성 이순옥 이미재 이순자 윤영희 유순녀 박두희 심명희 신소자 조화순 조숙 정명섭 정명옥 정순자 전부득 필기복 최미정 현계식 이해수 이의복 이명자(A) 이명자(B)

### 인도네시아/서만수 선교사



### 선교연구원 94년도 학생모집

### 1년 코스로 선교 전문가들이 강의

선교연구원은 선교에 대해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선교전략을 수립하고 선교사를 위한 효과적인 기도 및 지원을 힘쓰며 전문인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 청소년 선교지도자 및 선교후원자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선교의 대 사명을 책임있게 수행하는 일이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이 때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뜻있는 많은 성도들이 귀한 훈련을 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일꾼들이 되기를 바라며 선교연구원에서는 94학년도 학생을 모집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모집인원 : 100명
2. 교육기간 : 1년 2학기제 52주간(94.2.13 - 95.1)
3. 강사진 :

노봉린 박사(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 교수)  
전호진 박사(한국 세계선교협의회 총무)  
전재욱 박사(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과장)  
이동주 박사(서울신학대학 대학원 교수)  
임흥년 박사(World Link University)  
강승삼 박사(총회선교부 선교국장)  
권형기 박사(아시아연합신학대학 교수)  
이외 해외선교사 여러분

### 4. 등록접수 :

접수처에 비치된 등록신청서에 기재사항을 적으신 후 교구 담당목사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등록비(학기당 10,000원)와 함께 94년 2월 13일까지 본 교회 사무국 행정과로 접수.

### 5. 면접 :

94년 2월 13일(주일) 오후 2:30 부터 4시 50분까지 베다니홀에서

### 교역자 이동

윤용규 목사가 홍콩총현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됨에 따라 교구담당 교역자들의 이동이 불가하게 됐다.

윤용규 목사가 맡았던 12교구는 애조웅 목사가 1교구와 겸하여 맡게 되었다. 한편 여전도사들이 다음과 같이 이동하게 되었다.

오인숙 전도사(9교구에서 1교구로)  
임태주 전도사(10교구에서 23교구로)  
오정숙 전도사(21교구에서 7교구로)  
정연희 전도사(1교구에서 9교구로)  
김정자 전도사(23교구에서 10교구로)  
황정순 전도사(7교구에서 21교구로)

## 1. 본문의 내용

### (1) 주님의 사랑의 호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치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호소를 하듯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섬리해주시고 사랑해 주셨지만 인간들은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의 독생성자를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본문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호소가 정말 애절합니다. 주님은 암탉의 예를 들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번이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사탄마귀라고 하는 까마귀가 우리를 채갈려고 엿보면 주님께서, 혹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합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열심히 우리를 모으시는데 이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납함해 하고 도망가고, 놀려잡네 하고 도망가면 여지없이 사탄이 우리를 채잡니다. 이렇게 모으려고 한 적이 몇번이냐고 하시면서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탄식하시는 주님의 탄식은 마치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나오는 다윗의 탄식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배반했던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 하면서 탄식했습니다. 다윗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진한지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사랑합니다.

### (2) 하나님의 참으심

본문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한두 번하고 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참고 참고 참고 또 참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오래오래 인내하고 또 인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라고 했는데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가라는 역대하 24장 20-22절까지를 보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했으나 악한 백성들과 요아스 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죽이면 또 보내고 죽이면 또 보내시다가 독생성자 예수님까지 보내셨고, 그 후에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지금은 선교사들을 보내십니다. 본문은 이렇게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내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인내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3) 죄의 고의성

죄는 알지 못해서 짓는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잘못된 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묘해서 밖에서는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안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문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밖에서 문을 여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은 밖에서 강제로 열 수 없고 오직 안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애만 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십니다. 그런데 안 열어 줍니다. 하나님이 들어오고 싶어하시고, 우리와 만나 대화하고 싶어하시는데 우리는 마음의 문을 탁 잠그고 열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 죄의 고의성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 (4) 주님을 배척했을 때의 결과

우리 인간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고의적으로 문을 열어 주지 아니할 때,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을 때 오는 결과를 38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바 되리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에 '너희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

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사랑의 손이고, 능력의 손이고, 은총의 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왼손은 심판의 손이고, 공의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길 때에 문을 열어가지 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의 손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멸망당고 맙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바 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2) 하나님은 주의 종들의 받는 대접에 관심을 가지시고 마지막에 계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이 받는 대접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계산을 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이 사가라를 인정치 않고 죽여 버렸지만 하나님은 사가라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여호와와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대하 24:22)라고

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종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종들이 푸대접을 받고, 주의 종들

이 매맞고, 죽임을 당할 때 멀리서 그냥 바라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34절에 보니까 그들은 선지자들을 구박하고 채찍질하고 죽이고 별의별 짓을 다했습니다. 결국 그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맺들은 천천히 돌지만 아주 곧게 맺는다'라고 하는 속담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종들을 함부로 대해서 때리고 구박하고, 그들이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올 때에 푸대접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 하시면서 탄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나는 하나님의 탄식감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탄식감이 되었다면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고 이 시간 이후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명심할 것은 그들에게 기도가 있고, 의식이 있고, 율법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예루살렘의 성전은 죽은 성전이고 텅빈 성전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가슴속에 주님이 없으면 우리도 죽은 성전이고 텅빈 성전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 있는 성전이고 예수님으로 가득찬 성전임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속에 사랑이 없으면 죽은 성전, 주님 없는 텅빈 성전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고, 우리 가슴 속에 가득히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우리를 불러모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기도하며 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현강단



# 주님의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 (마 23:37-39)



신 성 종

<목사·당회장>

전은 본래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하나님은 성전을 '너희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다면, 물론 의식과 율법과 여러 가지 화려한 것이 많이 있다할지라도 주님을 그 안에 영접지 아니하고 배척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배척하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그 집은 황폐하여 하나님께서 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은 디도 대장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때에 100만이 넘는 많은 사람이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배척의 결과입니다.

## 2. 본문이 주는 교훈

(1) 하나님께서는 사람이시지만 죄짓도록 계속해서 그냥 바라만 보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믿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냥 두면 지옥에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질병을 통해서, 또 설교와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의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두드러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 인사 먼저 하기



최근에 천절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바람직한 말이다. 그런데 천절운동의 일환으로 '인사 먼저 하기' 부터 했으면 좋겠다. 우리 나라의 인사를 보면 별로 많지 않다. 옛날 굶주릴 때에는 '진지 잘수셨습니까?' 하고 인사했다. 해방이 되면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해왔다. 간 발에 유명한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요즘은 '건강하십니까?' 하거나 '비변하시요?' 하고 인사한다. 최현배 선생님이 살아 계셨을 때 우리 제자를 앞에서 반가 라는 인사를 보았던 적이 있다. 만나서 반갑고, 날씨가 좋아서 반갑고, 이래저래 반가우니 그렇게 인사하자고 했다. 어떤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고 인사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인사가 가장 바람직할까? 무엇보다도 미소로 주고받는 인사는 종교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인사가 아닐까?

글 / 신 성 종 목사

## ◆ 수양회에 다녀 온 후에 ◆

## 믿음 그리고 기도

장 한 나  
(중등부·1년)

중등부에서 처음가진 동기수련회. 무척이나 설레이던 수련회였다. '네 믿음 대로 되라'는 주제아래 교회를 출발한 우리. 설레이는 만큼이나 프로그램도 많았다.

부흥회나 우리가 관심이 많았던 뉴에이지 등에 관한 특강과 찬양뿐 아니라 가나안을 향하여, 기네스라이프, 나도 선교사, 성경퀴즈대회, 산상기도회 등이 시간마다 우리를 반기고 있었다. 우리반은 각 종목에서 언제나 꼴찌를 차지했지만 마음만은 평안(?)했다. 아마도 학교 같았으면 짜증부리고 대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리라.

둘째날 밤. 기도회는 나에게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 평소 기도를 잘 못하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이었을까? 주제별로 통성기도를 하면서 이전엔 느끼지 못했던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다.

"주여!"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할 때는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처음으로 하나님과 진정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눴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때껏 마음 한 구석에 자리잡고 있던 고민도 함께.

이번 수련회는 정말 잊지 못할 수련회가 될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역시 집 떠난 새 생활은 새로웠어요.  
오랜만에 먹어보는 기도원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기는 했지만  
뭐 먹으러 왔나요? 말씀 배우러 왔죠.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정은이 너도 잘 있고?

지금 제 주위는 시끄럽지만 그래도 이 편지를 쓰는 제 맘은 흥분되고 은혜를 받은 것 같아 기쁘기만 해요. 기도원에 도착하기 전 먼저 종로에서 엄마와 헤어질 때 그리고 야파와 교회에서 헤어질 때 저는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섭섭한 마음을 달래며 버스에 올랐는데 기도원에 가까워질수록 섭섭했던 마음은 점점 가라앉는 듯 했어요. 이제 얼마동안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지낸다는 생각이 머리속에 듬뿍 차 있었기 때문이죠. 역시 집 떠난 새 생활은 새로웠어요. 오랜만에 먹어보는 기도원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기는 했지만 뭐 먹으러 왔나요? 말씀 배우러 왔죠.

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때(시)는 둘째날 취침전 시간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가나안을 향하여...'였어요. 6학년 여름수련회때 했던 천로역정과 비슷했지만 밤에 안하고 낮에 했기에 잔혹탕에 빠지는 경우는 없었어요. 하지만 물이 얼어 하마터면 깊은 물에 빠질 뻔도 했어요.

우리 43반 팀은 하나가 되어 344장을 합쳐서 부르며 평균도 하구요. 오늘은 '나도 선교사'를 했는데 신문지와 색종이로 종이옷을 만들고 설명을 하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기쁘게도 우리팀이 전체 2등을 했지 뭐예요. 우리팀은 신나서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그리고 제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되는 계기 중 가장 큰 계기는 1시간 넘게 한 통성기도였어요.

김희수 목사님이 기도할 제목을 주시면 저희는 그 주제에 따라 입을 열어 통성기도를 했죠.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란 생각이 듭니다. 꼭 거듭나고 마음을 정결케 하여 내려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994. 1. 30

아들 태현 올림

이 글은 중등1부 수련회에서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시간에 쓴 글입니다.

## ◆ 징검다리 ◆

## 집사님의 잔잔한 미소를 보며

김 양 흡 (목사, 22교구, 선교위원회 지도)

오늘도 주어진 일에 충실하기 위해 시간 계획을 세우고 그 시간에 맞추어 교구를 돌아보며 선교위원회의 일을 하였다. 매주 실시하는 선교를 위한 기도회가 오늘 나의 일을 더욱 바쁘게 하였다. 일을 하면서도 꼭 가야 하는데 아직 가지 못한 심방이 마음에 걸려 있었다.

급하다고 생각된 일들을 다 처리한 후에 시계를 보니 심방을 다녀올 수 있는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서 서두르기는 했으나 결국은 극심한 교통체증을 체험하며 병원을 향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복 단계에 있는 줄로 알았던 집사님이 오늘에서야 수술을 받았으며, 이제 수술이 끝나고 마취가 깨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약 1시간 정도의 기다림이 필요했다. 시간의 차질이 생겼다. 오늘 해야 할 다른 일이 또 하나 있는데 하는 생각으로 나의 마음은 조금 초조해졌다. 바쁘다는 핑계로 항상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하던 나에게 이 시간의 기다림은 쉬운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기로 했다. 회복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더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집사님을 실은 침대가 병실로 들어왔다. 집사님은 아직 의식이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몹시 피곤에 지쳐 있는지 눈을 감고 있었다. 회복을 기다리면서 가족들과 함께 찬송을 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약간의 의식이 회복됨을 알고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마치고 집사님의 손을 잡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염려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 그 순간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잔잔한 미소를 짓는 집사님의 모습은 마치 나에게 천사의 모습을 연상하게 했다.

대단히 힘이 들텐데, 아픔도 있을텐데,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말씀 속에서 평안을 찾은 그 미소는 나의 마음에 너무나도 깊게 새겨졌다. 나에게 보였던 그 잔잔한 천사의 미소는 화상으로 가려진 현대인의 얼굴에서는 찾을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다.

그 순간 나의 피곤함은 어디론가 이미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찾아가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니 고통 속에 있는 집사님의 얼굴에서 천사의 모습이 보인다 생각하니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왔다. 돌아오는 길의 교통체증은 짜증의 시간이 아니라 찬송과 감사의 시간이 되었다.

며칠이 지난 후 회복이 궁금하여 전화를 하였다. 집사님은 그 때를 회고하면서 감사하다고 했다. 누구인지, 무슨 소리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았지만, 희미한 의식 속에서 들려지는 말씀은 자신에게 대단히 큰 힘이 되었다고 했다.

나의 작은 일이 성도들에게 힘을 준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나는 그 때의 일을 기억하며 헌신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 '주님, 성도들을 찾을 때마다 이런 천사의 미소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천사의 미소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 살며 생각하며 ■

## 목사님, 저 떨어졌어요.

어느날 저녁 전화가 걸려왔다. '목사님 저 OO예요.' 그렇잖아도 대입합격자 발표기간이라 걸려오는 전화에 신경이 쓰이던 때다. 대개 먼저 걸려온 전화는 합격한 경우가 많길래 '아, 애는 됐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물었다. '좋은 소식이니?' '네, 목사님! 저 떨어졌어요'.....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 '서운하겠구나' '아뇨, 괜찮아요' 좀 여유가 있어보인다 싶어서 우스개소리를 했다. '애, 남들은 합격했다고 축하하는데, 너는 떨어진 주제에 왜 전화하니?' '그래도 목사님께서는 알려드려야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눈물이 핑 돌았다. 마음 속으로는 얼마나 참기 힘들었을까.....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수년동안 중단했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던 이 친구는 이제 불합격이라는 실망스런 상황 가운데서도 뜻뜻하게 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지금은 서운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자녀로 가정에서 잘 키워주신 부모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신앙을 책임져준 교회선생님에게도.

무엇보다도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면서, '다 저더러 겸손해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구요.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어요. 목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고야 만다구요.' 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그 신앙이 어찌하면 그렇게도 대견스러웠던지.....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널 가만 두시지 않을게다. 기대하고 또 잊지않고 기도하마.' 그날 저녁 내내 기분이 좋았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최선을 다한 결과가 불합격이라면, 그 상황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욥 23:10) 장 봉 생(목사, 고등부 지도)

# 1994년 교회 주요 행사 일정

## ◆ 당회 행사

| 행 사 명       | 날 짜   | 협력부서 |
|-------------|-------|------|
| 제26대 장로선거   | 3/20  | 당 회  |
| 제28대 장로 장립식 | 10/20 | 당 회  |

## ◆ 예배 위원회

| 행 사 명     | 날 짜       | 협력부서      |
|-----------|-----------|-----------|
| 신년예배      | 1/1       | 당 회       |
| 종려주일      | 3/27      |           |
| 고난주간      | 3/28-4/2  | 당 회       |
| 부활절 예배    | 4/3       | 찬양위       |
| 어린이주일 예배  | 5/1       | 교육위, 찬양위  |
| 어버이주일 예배  | 5/8       | 교육위, 찬양위  |
| 맥추감사절 예배  | 7/3       | 교육위, 찬양위  |
| 추수감사절 예배  | 11/20     | 교육위, 찬양위  |
| 성탄축하 예배   | 12/24, 25 | 교육위, 찬양위  |
| 세례문답 및 교육 |           | 당 회       |
| 세례식       | 제1차 세례식   | 1/7 당 회   |
|           | 제2차 세례식   | 3/25 당 회  |
|           | 제3차 세례식   | 5/20 당 회  |
|           | 제4차 세례식   | 7/15 당 회  |
|           | 제5차 세례식   | 9/16 당 회  |
|           | 제6차 세례식   | 11/11 당 회 |
| 성찬식       | 제1차 성찬식   | 1/9 당 회   |
|           | 제2차 성찬식   | 3/27 당 회  |
|           | 제3차 성찬식   | 6/26 당 회  |
|           | 제4차 성찬식   | 11/13 당 회 |

## ◆ 인사 위원회

| 행 사 명     | 날 짜   | 협력부서 |
|-----------|-------|------|
| 교회일꾼 임명   | 12/11 | 교구위  |
| 포상자 선정 포상 | 12/18 | 사무국  |

## ◆ 기획 위원회

| 행 사 명        | 날 짜      | 협력부서 |
|--------------|----------|------|
| 제3회 예수사랑 큰잔치 | 10/2, 9중 |      |
| 교역자 연수회      | 봄, 가을    | 당 회  |
| 장로 수양회       |          |      |
| 원로장로 수양회     |          |      |
| 부흥회          |          |      |

## ◆ 전도 위원회

| 행 사 명     | 날 짜 | 협력부서 |
|-----------|-----|------|
| 여름 전도대 파송 |     |      |
| 군목후보생 수양회 |     |      |

## ◆ 선교 위원회

| 행 사 명          | 날 짜       | 협력부서 |
|----------------|-----------|------|
| 선교주일 및 헌금작정    | 1/30      |      |
| 선교세미나 및 부흥회    | 4/26-4/29 |      |
| 선교지 순방과 답사(1차) | 5월        |      |
| 선교훈련팀 영성훈련     | 6/4-7/30  |      |
| 선교훈련팀 1차 파송    | 7/24      |      |
| 선교훈련팀 2차 파송    | 8/7       |      |
| 선교훈련팀 선교보고대회   | 8/28      |      |
| 선교지 순방과 답사(2차) | 8월        |      |
| 북한선교 세미나       | 11/17     |      |
| 회원초청 선교 보고회    | 12/10     |      |
| 통일전망대 방문기도회    | 12월       |      |

## ◆ 교육 위원회

| 행 사 명       | 날 짜       | 협력부서 |
|-------------|-----------|------|
| 교회학교 실무자 교육 | 1/9       |      |
| 겨울 성경학교     | 1-2월      |      |
| 가정주일        |           |      |
| 교사 야외예배     |           |      |
| 교사강습회       | 6/20-6/25 |      |
| 여름성경학교      | 6월        |      |
| 교사단기훈련      | 10/16     |      |
| 교회학교 행정감사   | 8/28      |      |

## ◆ 교구 위원회

| 행 사 명        | 날 짜  | 협력부서 |
|--------------|------|------|
| 경로심방         | 1-2월 |      |
| 당회장 교구위원 간담회 |      |      |
| 교구별 야외예배     | 5월   |      |

## ◆ 봉사 위원회

| 행 사 명  | 날 짜 | 협력부서 |
|--------|-----|------|
| 제1차 헌혈 | 6월  |      |
| 제2차 헌혈 | 10월 |      |

## ◆ 건축 위원회

| 행 사 명    | 날 짜 | 협력부서 |
|----------|-----|------|
| 제2교육관 착공 |     |      |
| 기도원 확장   |     |      |

## ◆ 성경연구원

| 행 사 명      | 날 짜      | 협력부서      |
|------------|----------|-----------|
| 단기수련회      | 교역자      | 1/12-1/13 |
|            | 장 로      | 1/12-1/13 |
|            | 집 사      | 1/12-1/13 |
|            | 권 사      | 1/12-1/13 |
|            | 서리집사     | 1/12-1/13 |
|            | 교 사      | 1/12-1/13 |
|            | 찬양대      | 1/12-1/13 |
|            | 전도회원     | 1/12-1/13 |
|            | 직 원      | 1/12-1/13 |
|            | 제1학기     | 3/5-6/18  |
| 주간성경공부     | 제2학기     | 9/5-12/17 |
|            | 전반기 주일반  | 3/5-6/13  |
|            | 화요반      | 3/5-6/15  |
|            | 후반기 주일반  | 9/3-12/12 |
| 교사양성부 제40기 | 화요반      | 9/3-12/14 |
|            | 제9기      | 3/5-6/13  |
| 찬양대 양성부    | 제10기     | 9/3-12/12 |
|            | 청지기 훈련   | 4/7-6/10  |
| 성경 통신강좌    |          |           |
| 특별교육       | 28대 피택장로 | 4/2-9/25  |
|            | 서리집사, 권찰 | 11/3-4    |
|            |          | 11/10-11  |

## ◆ 교회성장 연구원

| 행 사 명       | 날 짜     | 협력부서             |
|-------------|---------|------------------|
| 제3회 목회자 세미나 | 2학기 3학기 | 3/7-5/9 9/5-11/7 |

## ◆ 도서, 장학회

| 행 사 명       | 날 짜  | 협력부서 |
|-------------|------|------|
| 장학회 간담회     | 1/9  |      |
| 장학생 서류심사    | 2/13 |      |
| 제1학기 장학금 수여 | 3/13 |      |
| 장학회 간담회     | 7/3  |      |
| 장학생 서류심사    | 8/14 |      |
| 제2기 장학금 수여  | 9/11 |      |

## ◆ 교육 연구소

| 행 사 명        | 날 짜 | 협력부서 |
|--------------|-----|------|
| 교육연구소 운영안 제정 |     |      |
| 교재 편찬 사업     |     |      |
| 교육과정 제정      |     |      |
| 교육방법 개발      |     |      |
| 교육행정 개발      |     |      |

## ◆ 기도원

| 행 사 명         | 날 짜       | 협력부서 |
|---------------|-----------|------|
| 신년 특별부흥회      | 1/3-1/7   |      |
| 사모경건 훈련       | 4/4-4/7   |      |
| 목회자 경건훈련      | 4/18-4/21 |      |
| 기도원설립 16주년 성회 | 5/30-6/2  |      |
| 광복절 기념성회      | 8/8-8/12  |      |
| 부흥회           |           |      |
| 송년성회          |           |      |

## ◆ 출판국

| 행 사 명  | 날 짜  | 협력부서 |
|--------|------|------|
| 주간총현   | 매주   | 기획실  |
| 총현의 만나 | 매월   | 교역자실 |
| 주간총현   | 계간   | 기획실  |
| 주보     | 매주   | 기획실  |
| 교회요람   | 2/27 | 기획실  |
| 총현40년사 |      | 기획실  |
| 제작 사진첩 |      | 기획실  |

## ◆ 총회 및 회의

| 행 사 명   | 날 짜    | 협력부서      |
|---------|--------|-----------|
| 위원장 협의회 | 당회 전주  |           |
| 정기 당회   | 매월 첫주  |           |
| 제직회     | 매월 둘째주 |           |
|         | 제1차    | 3/6       |
|         | 제2차    | 3/20      |
|         | 제3차    | 12/25 당 회 |
| 특별 제직회  |        |           |
| 총 회     | 교 사    |           |
|         | 찬양대    |           |
|         | 전도대    |           |
|         | 교 구    |           |

## 총현상조회

## 행정위원회 산하로

당회는 그동안 봉사위원회 산하에 있던 총현상조회를 행정위원회 산하로 변경할 것을 결정했다.

따라서 봉사위원회 회장이 겸직하던 상조회 회장을 동산관리부장이 겸직도록 했고, 경조부장이 부회장을 겸직했었는데 부회장은 집사(서리집사 포함)중에서 선정하기로 했다.

## 찬양대 지휘자

## 심포지엄 참가

한국합창총연합회가 주관하는 한국합창 심포지엄에 우리 교회 찬양대 지휘자들이 참석했다.

올림픽 파크호텔에서 1월 27~29일까지 3일간 합창지휘자들을 위한 보수교육과 상호 정보교환 등의 목적으로 열린 본 심포지엄에 조진욱(가브리엘찬양대, 실로암찬양대 지휘자)집사, 최덕식(임마누엘찬양대 지휘자)집사, 김영준(할렐루야찬양대)집사, 최광덕(아멘찬양대 지휘자)집사, 송숙자(호산나찬양대 지휘자) 집사, 이수철(시온찬양대 지휘자) 집사와 민애라(핸드벨연주단 지휘자)선생이 참가했다.

##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다함께 기도합시다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 김창인 목사님 : 30일 (주) 평촌제일교회 입당 예배 설교
- 신성중 목사님 : 2월3일(목) 도원회 월례회 설교, 4일(금)연변과학기술대학 교직원 수련회 특강 (소망교회 수양관)
2. 대통령 내외분을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며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3. 교역자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고 모든 직분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4. 구역의 모임이 말씀과 기도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더욱 부흥되게 하소서.
5. 지역일꾼모임을 통해 받은 바 사명을 다짐하고 헌신을 결심하게 하소서.